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시행

익산시,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수급자 집에서 안정적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익산시가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3년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입원 필요도가 낮은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와 식사, 이동을 지원하는 신규 의료급여 서비스다.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의료자원을 담당하고, 익산시가 돌봄·식사·이동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단순히 돌봄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복귀시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서비스도 강화한다.

집으로 복귀 시 주거환경개선·냉난방기구·생활용품 지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례회의를 거쳐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생활가전·밀반찬(식사)·간병서비스, 병의원 외래 이용 시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7월부터 장기입원자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절감에도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허전 익산시 부시장이 지역발전과 민생과 밀접한 주요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들의 뜻 잘 헤아려 힘 보태”

허전 익산시 부시장, 발 빠른 현장 행정 '눈길'

허전 익산시 부시장이 지역발전과 민생과 밀접한 주요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초 취입 후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허 부시장은 직접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대규모 사업에서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 20여곳을 방문해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허 부시장은 29일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 현황을 살핀 후 예정대로 내년 말 준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앞선 지난 19일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국가산단 2단계 사업이 확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를 돌아보며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0일에는 청년시청, 중앙시장 복합청년몰(상상노리터), 만경강 문화관 등 익산 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며 사업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했다.

허 부시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현지 출장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익산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장마 대비 빗물받이 등 집중 점검 실시

재난취약지역 사전예찰활동

군산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29일 읍면동 빗물받이 집중 점검 등 재난취약지역 사전예찰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29~30일 예상강우량이 150mm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45개 관공소와 27개 읍면동 직원 60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관내 빗물받이와 하수관을 집중 정비했다.

동 지역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교차로 23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들을 비롯해 자율방재단 자생단체 등 100여명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관 합동 빗물받이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 전체 골목길, 상습 무단투기지역 이면도로 등 침수 취약지역을 찾아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집중 호우 시 막히지 않도록 낙엽, 담배꽂초,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특히, 김기정 부시장은 이날 오전 반 지하주택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반



지하주택세대에 물막이 차수관 설치해 사전 예방에 힘써왔다.

소룡동에 거주하는 주민 장모(60대·여)씨는 "주택가 뒤쪽에 위치해 있는 점방산 배수구가 주변 풀, 흙, 나무와 각종 쓰레기로 막혀, 매년 침수 위험에 늘 노출했는데, 동 직원 10여 명이 현장에 나와 50미터나 되는 구간을 손으로 정비하고 막힌 배수로를 뚫

어줬다"며, "담당 부서에서도 인근 급경사지와 함께 정비할 계획이라며, 시의 빠른 대처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빗물받이·하수관 정비 349건, 포트홀 점검 57건, 읍면동 수방자재 정비 62건, 재난 취약지 사전점검 88건 등을 실시했으며, 이 중 94건은 담당 부서로 이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말도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군산시가 섬지역 식수난 해소를 위해 방축도에 이어, 명도와 말도에도 광역상수도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고군산군도 섬 지역의 고질적인 식수난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포함 총사업비 333억원을 투자해 방축도, 명도, 말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에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고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방축도에 이어 명도와 말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 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로 7.3km 및 배수지 등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5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하수와 해수 담수화에 의지해 왔던 명도, 말도에도 용담댐에서 공

급되는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해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방축도~명도~말도가 2023년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선정되는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광객 수요가 늘어난 만큼 방문객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군산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희망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다.

이번 모집하는 15개 사업은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사업을 비롯,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맞춤형운동(수중·마루),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정신건강토달케어, 청소년비전형성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스포츠 활동건강관리, 노인문화여가보

달, 청소년재활습마지원, 글로벌미인드형성, 성인심리지원, 노인맞춤형주거관리, 청년신체건강증진 사업으로 총 700여명을 모집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별로 필요한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앞서 29일 서비스 기준정보 등 정확한 안내를 위해 27개 읍면동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배속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3년 시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군산시는 시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위원회 위원, 업무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승우 강사(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의 사례 중심으로 시 참여예산제도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며 실시됐다.

특히, 사업제안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더욱 쉽게 제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전세사기 예방 청년시청서 잡지식 교육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사전 차단하고 안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9일 익산청년시청에서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기초 상식을 배우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홈(home)에 대한 잡지식' 교육을 개최했다.

'집다운 집', '안심할 수 있는 집', '부담 가능한 집' 찾기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집 구하기 전 사전 준비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거 상담 사례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강화를 진행했다.

참여청년은 "요즘 전세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와 공인중개사 확인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 역량을 강화해 거래사고 및 전세사기 등을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